

과수화상병에 배·사과 재배면적 줄어

지난해 배 5.4% 사과 4.1% 감소 나주시, 궤양 의심가지 제거 "치료제 없어 방제만이 최선책"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국내 대표과일 배와 사과, 그런데 왜 재배면적은 줄어드는 걸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5.4% 감소한 데다 봄철 저온 피해와 장마, 태풍 등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21.8% 급감한 15만7000t으로 나타났다. 사과도 재배면적이 4.1% 감소했고,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6% 줄어든 45만2000t이었다.

통계청은 배와 사과의 재배면적이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배는 성숙면적 감소가 지속되고 화상병·고령화로 인한 폐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3.1% 감소한 8811ha, 사과는 유목면적과 성숙면적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3만1224ha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인기 과일인 배와 사과의 재배면적까지 감소하는 것은 과수화상병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과수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말라 피해를 주는 병이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이 강해 적기 방제를 통한 예방만이 최선이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매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일나무는 다시 수확하기까지 카우려면 수년이 걸리는 탓에 농가의 재기가 어려움을 수반한다.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사과·배 과수원의 폐원이 잇따르고, 농가도 대체작목으로 품목을 바꿈에 따라 배와 사과의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배 주산지인 나주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가지궤양 제거 등 겨울철 꼼꼼한 과수원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과수의 가지나 줄기에 검게 형성된 궤양은 과수화상병, 부란병, 겹무늬씩음병 등 병원균의 월

동체가 돼 이듬해 병해충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 시 궤양이 의심되는 가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가지 제거는 궤양이 발생한 부위를 중심으로 밑부분에서 40~70cm 이상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과수원 출입 전·후 작업복과 전정가위, 톱 등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나주시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정기 예찰, 예방수칙을 농가 스스로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현수막, 리플렛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3월 초쯤 화상병 동계 약제를 배포하고 배(3월 말)와 사과(4월 초) 등 과수의 적기 살포를 권장하기로 했다.

김흥배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겨울철 가지치기 시기에 맞춘 가지 궤양 제거는 과수화상병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정기예찰을 통해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고 적기에 예방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지능형 박물관으로 바뀐다

문광부 '스마트박물관 사업' 선정 12억 확보...색다른 문화체험 제공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이 지능형 박물관으로 바뀐다.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전국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뉴딜 사업인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미래 기

술을 활용해 박물관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사업'과 '스마트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고려청자박물관은 두 사업에 모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포함 총 12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사업'은 청자의 연료 채취부터 제작·운반·발굴·복원 등의

전 과정을 놀이기구와 접목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험존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박물관 구축지원 사업'은 시를 기반으로 한 박물관의 전시·관람 안내를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원격교육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의 대표 콘텐츠인 고려청자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청자와 관련한 가상체험을 제공, 관람객에게 색다른 체험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강진수협, 장학금 300만원 강진장학재단에 쾌척

강진군수협이 최근 지역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장학금 300만원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사진〉
강진군수협은 상호금융 업무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취업활동 지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물 위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장학금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박법석 강진군수협 조합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힘을 보



태고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군민들로부터 받은 지원과 사랑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 한천면 여경경로당, 메주 판매해 장학금 100만원

화순군은 최근 한천면 모산리1구 여경경로당 회원들이 행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장학금 100만원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가정은 최근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지만 코로나 19로 가장이 실직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다.

소식을 접한 여경경로당 회원들은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회원들은 "2020년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을 통해 함께 메주를 만들어 판매했고, 수익금 일부는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했다.

〈사진〉
홍정용 한천면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



역의 어른들이 공동작업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베푸는 모범을 보여줬다"면서 "행정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희 기자 byj@kwangju.co.kr

장흥고 모자봉사단 5년째 봉사...요양시설에 위문품

장흥고등학교 모자동행봉사단은 5년째 정남진노인요양원, 장흥군노인전문요양원, 장흥군노인요양센터 3곳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흥고 모자동행봉사단은 짝을 이룬 학생·학부모 총 28팀이 풀밭기, 빨래, 정리정돈, 말벗하기, 장애어른 도와주기, 산책하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표 20여 명이 요양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김광수 장흥고 교장은 "장흥고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모자동행봉사단 활동이 앞



로도 꾸준히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모자동행봉사단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따뜻한 소통을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금호·비엔날레·동운 로타리클럽 회장단 凍害로 배추 수확 포기 귀농초보농부 도와

광주국제로타리클럽 3710지구 회장단이 동해(凍害)로 김장배추 수확을 포기한 귀농 초보 농부를 도와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국제로타리클럽 3710지구 소속 금호로타리클럽, 비엔날레클럽, 동운로타리클럽 회장단은 지난 8일 동해를 입은 나주시 부덕동의 김장배추 농장을 찾아 직접 수확에 나섰다. 봉사 현장에는 3개 클럽 회장단과 회원 15명이 참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를 감안해 3~5명씩 수확 작업을 진행했다.

이 농장은 고향으로 귀향한 초보 농부가 김장배추를 심어 첫 수확을 앞두고 동해를 입은 곳이다. 이 농부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김치공장에 전량 납품하기로 하고 김장배추를 재배했지만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히면서 수확을 포기해 동해를 입게 됐다.

민광에 금호로타리클럽 회장은 지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회장단 및 회원들과 함께 수확 봉사에 나섰다. 이들은 동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부에게 적절한 가격의 김장배추 값을 지불하고 직접 수확한 김장배추는 10년째 지원을 해오던 주간보호센터에 기증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민 회장은 "마침 어려움에 처한 이웃돕기 대상을 찾던 중 지인을 통해 초보 농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한 걸음을 달려왔다"며 "조그만 손길이지만 피해 농부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국제로타리 3710지구 금호·비엔날레·동운 로타리클럽 회장단이 동해로 김장배추 수확을 포기한 나주시지역의 귀농 초보 농부를 돕기 위해 배추 수확 및 구매를 했다. 〈금호로타리클럽 제공〉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